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언니집에 놀러간 날

오늘 언니집에 우리가족과 고모네 집도 같이 언니집에 갔다 그리고 놀이터를 갔다 거기서 그네도 탔는데 신났다! 그리고 풀이 떨어져 있어서 돌로 풀을 밟았다. 그리고 두에 소나무가 있었다 근데 노란색 열매가 있어서 툭툭 쳐보았는데 가루와 연기가 날랐다, 신기했다. 그리고 돌아와 닭도 먹었다. 맛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노래방에 갔다. 근데 수요일날 동요 대회가 있어서 목이 쉬면 잘 못부를까봐 걱정이 됐다. 하지만 즐거웠다. 근데 놀이터에서 공중에 꿈틀꿈틀거리는 초록색이 있었다. 그래서 동생이 잡아보았더니 그건 애벌레였다!! 징그러웠다. 애벌레가 공중에 있다니..... 그 애벌레 사건은 잊을수 없을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이 즐겁고 신나기만 했다. 재미있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